



3면  
당헌 80조 개정... 민주, 의총서 찬반 갈려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음 7월 20일) 제30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내 2058억 확보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 560억·도내 11개 시군 1498억  
도, 삶의 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채류인구 유입 등  
추진전략 바탕 생활 인프라 개선·일자리 창출 등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 및 11개 시·군이 20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2058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 광역분위 560억 및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 1498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도별로 보면, 올해에는 882억(도 240억, 시군 642억), 내년에는 1,176억(도 320억, 시군 856억)이 배분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은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배분됐으며, 시·군별로는 무주·순창이 각 168억(올해 72억, 내년 96억), 8개 시·군(정읍·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은 각 140억(올해 60억, 내년 80억), 관심지역인 익산은 42억(올해 18억, 내년 24억)을 확보했다.  
도는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인구여건 분석,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평가 대응 사전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에 도 및 11개 모든 시·군이 평균 이상인 c등급 이상의 기금을 배분받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 및 11개 시·군은 2022~23년 약 2,000억원 정도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삶의 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채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 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배분된 기금은 8월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첫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텅 빈 언더패스와 막힌 차도



전주시 일대에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린 16일 시 대부분의 언더패스가 통제되자 출근길 차도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듯 밀려 있다.

## “고창일반산업단, 친환경 ESG 기업유치에 올인”

심덕섭 군수,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 해지 발표  
“용수공급·폐수처리 등 환경보전방안 충족 못시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최대 이슈인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최대한 준공차리를 신속히 추진해 친환경 ESG기업을 유치해 오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심 군수는 "대량의 용수공급, 폐수처

리 등 강화된 환경보전방안의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업체와의 원만한 협의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그간 기업유치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타산지식 삼아 고창일반산업단지를 미래형 친환경 산업단지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1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준공 주민소통과 투명행정, 환경을 생각하는 ESG기업유치, 투자유치 보조금 세부기준 마련 등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심덕섭 군수는 "좋은 기업이 고창에 터를 잡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기존 기업에게는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 고창지역 자체 소비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 고창에 오도록 하겠다"며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 고창군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경수 기자

##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첫걸음'

도, 부안서 꽃게 40만 마리 방류... 어민 소득 향상 제고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 간 공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한다.  
도는 치어 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16일 부안 가력도 해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꽃게 약 4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치어 방류사업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자체 3억,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해상풍력)가 7억을 부담해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고창군수협, 부안수협이 협약도 체결했으며,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올해 치어방류 사업으로 고창군, 부안군 해역에 넓지, 꽃게, 해삼 등 총 1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도, 고창 갯벌 보전본부 유치 자문단 구성 나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대한 자문단 구성에 들어간다. 자문단 구성에는 전문가 및 지역 정치권 등이 참여 오는 2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5개 시·군에 걸쳐있는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본부 1개소와 방문자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갯벌 보전본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갯벌 보전본부를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

체에 한해 방문자센터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  
자문단은 건립계획, 입지타당성, 연계활용 분야의 전문가와 고창지역 정치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돼 공모 종료 시까지 한국의 갯벌 통합 관리 및 보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자문단 구성 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모내용 보완 및 자문, 사업 계획서 검토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 하는 열린의회

### 의회 고창군의의회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